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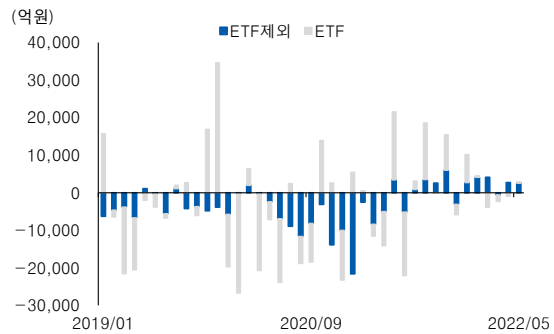


펀드 시장의 희망의 씨앗

1. 5월에도 해외주식펀드 투자는 지속

- 국내주식펀드의 순유입 규모는 작년말부터 감소 추세 .
- 글로벌 주식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해외주식ETF의 투자를 늘리고 있음
- KOSPI 200을 추종하는 ETF와 액티브 유형 중에서는 배당주펀드와 ESG펀드로 투자가 이어지고 있음.

국내주식펀드와 ETF의 자금 유입 규모는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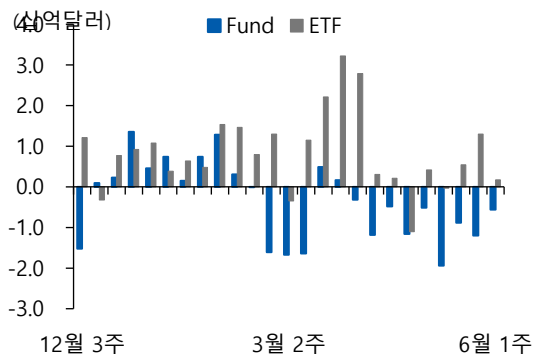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글로벌 투자자들은 약간 긍정적으로 돌아섬

- 글로벌 주식펀드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미국주식펀드와 ETF는 3주 연속 투자자금 유입 .
- 유럽 주식펀드는 16주째 순유출을 이어가고 있으나, 순유출 규모는 감소.
-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와 ETF는 오랜 순유출 끝에 순유입으로 돌아섰고, 신흥국 주식펀드는 순유출 규모 감소

글로벌 펀드 시장의 신흥국 주식펀드의 월 2.7% 까지 상승했으나 최근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5월에도 국내주식펀드투자는 줄이고 해외주식펀드 투자는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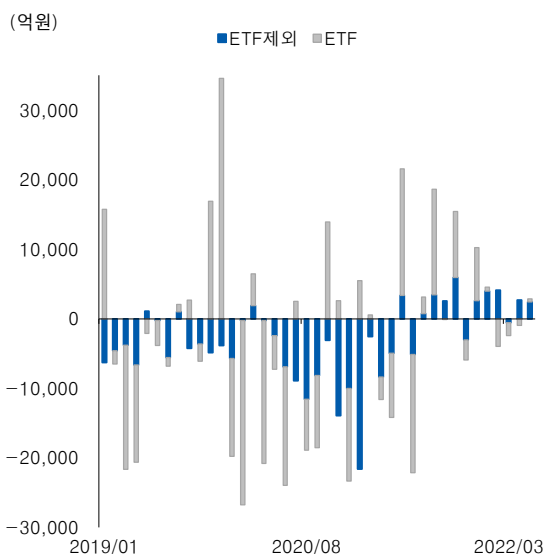
연초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국내식펀드로의 투자는 5월에도 여전히 주춤한 상황이다. 반면 해외주식ETF를 중심으로 해외주식펀드에 대한 투자는 작년 4분기부터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주식액티브 유형은 5월 -0.82%, 인덱스주식 유형은 -0.12% 의 수익률을 시현하였다. 해외주식유형은 월간 -0.83%의 수익률을 기록하였고, 해외주식 유형 중에서는 중국펀드가 6.53%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국내주식형과 해외주식형 모두 조정 국면에 들어섰으나, 투자자들은 4월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해외주식펀드는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으나, 국내주식형펀드에서는 관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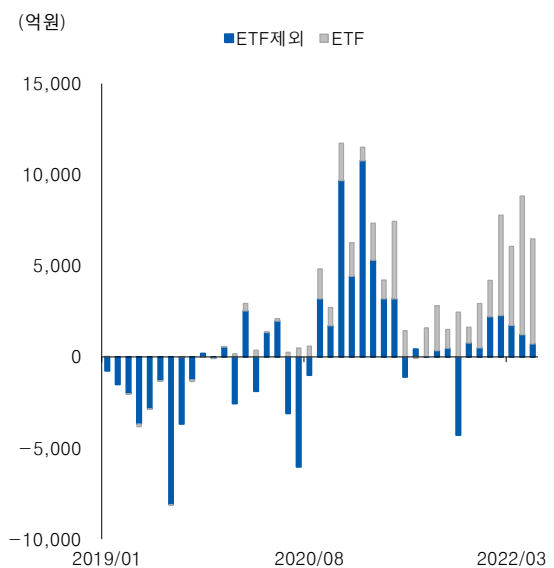
국내인덱스주식형 펀드 중에서는 KOSPI 200을 추종지수로 하는 ETF로 주로 자금이 유입되었고, 국내액티브주식형 펀드 중에서는 ESG와 테크, 배당주 등으로 투자 자금이 들어왔다.

[차트1] 국내주식형펀드와 ETF로의 자금 유입은 주춤한 상태 .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5월 해외주식형펀드와 ETF 로는 6469억원 순유입. 특히 ETF 투자 확대 지속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글로벌 투자자들은 약간 긍정적으로 돌아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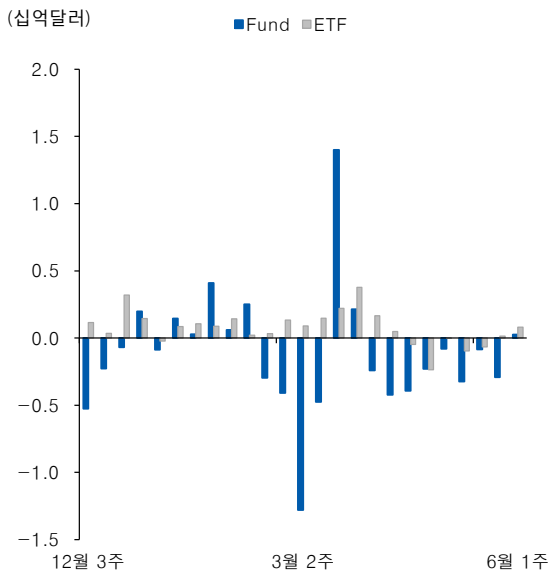
글로벌 펀드 시장에 투자하는 참여자들은 약간은 긍정적으로 변한 모습이다. 주식펀드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국주식펀드와 ETF는 2주 연속 순유출을 기록한 이후에 3주째 순유입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충격을 겪고 있는 유럽주식펀드는 16주째 순유출을 이어가고 있으나, 순유출 규모는 5월 이후 줄어들었다. 유럽채권펀드는 순유입과 순유출을 반복하면서,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력이 큰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와 ETF, 신흥국 주식펀드와 ETF는 공통적으로 순유출 규모가 줄어드는 긍정적 모습이 나타난다.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와 ETF는 6월 첫째주에 소폭 순유입으로 돌아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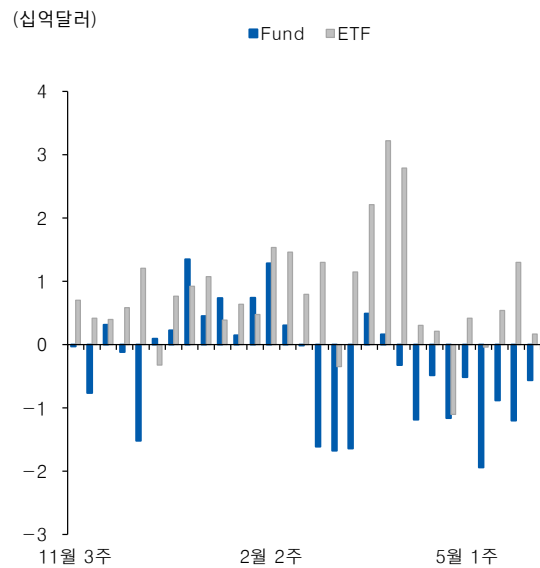
신흥국주식펀드는 순유출은 이어지고 있으나, 순유출 규모는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난다. 특히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빠른 경향이 있는 ETF는 5주째 순유입을 이어가면서, 긍정적 시그널을 보여주었다.

[차트3] 아시아(일본제외) 주식펀드와 ETF는 순유출 규모가 줄어들면서 6월 첫째주에 소폭 순유입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신흥국 주식펀드와 ETF의 순유출 규모는 감소 추세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